

# 호랑이 'V10'... 결전의 날 밝았다

### 조범현감독 "하늘같은 스승 반드시 꺾겠다"

### KS 1차전 로페즈-카도쿠라 용병 '맞대결'



'사제간의 대결이 시작됐다.' 한국시리즈에서 격돌하는 KIA 타이거즈의 조범현 감독과 SK 와이번스 김성근 감독이



15일 오후 무등경기장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해 우승을 향한 야심찬 출사표를 던졌다.

12년만에 KIA를 한국시리즈 무대에 올려놓은 조범현 감독은 "충분한 휴식과 훈련을 한만큼 명승부로 타이거즈 명가재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시리즈 2연패를 이룬 김성근 감독은 "한국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광주에 온 만큼 완벽한 경기를 하겠다"며 응수했다.

10번째 우승을 노리는 전통의 명문팀과 한국시리즈 3연패에 도전하는 신혈 명문팀의 대결로 요약되는 이번 한국시리즈는 '스승과 제자'의 지략대결로도 눈길을 끈다.

조범현 감독에게 김성근 감독은 하늘 같은 스승이다. 총알과 재학시절 스승과 제자로 만난 두 사람의 인연은 OB 베어스감독과 선수로 이어진다.

그리고 김성근 감독이 쌍방울 레이더스 사령탑으로 부임했을 때 조범현 감독은 배터리 코치로 스승을 보좌했다. 또한 2003년 SK에서 감독 생활을 시작한 조범현 감독에

이어 2007년부터 김성근 감독이 SK를 이끌어오는 등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제간'이다.

주장 김상훈과 행사장에 먼저 나와 스승을 기다린 조범현 감독은 김성근 감독이 모습을 드러내자 허리를 굽혀 깎듯하게 인사를 올리며 예의를 지켰다.

스승과의 자리가 조심스러운 조범현 감독이었지만 우승에 대한 욕심은 숨기지 않았다. 조범현 감독은 "야구에 대한 열정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고, 감독님 밑에서 많은 공부를 해왔고 이번에도 많은 공부 가 될 것 같다"면서도 "이번에는 감독님이 봐주시지 않겠나"며 수장으로서의 우승 욕심을 밝혔다.

김성근 감독도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만나서 여기에 같이 앉게 될 것이라고는 생



프로야구 KIA와 SK가 한국시리즈를 하루 앞둔 15일 광주 무등경기장 다목적체육관에서 미디어데이를 갖고 각각 필승을 다졌다. KIA 김상훈 선수·조범현 감독·SK 김성근 감독·김재현 선수(오른쪽부터)가 손을 잡고 페어플레이를 다짐하고 있다.

각지 못했다. 지도자로서 보람된 일이다"면서도 "승부는 승부다"는 말로 제자와의 치열한 맞대결을 예고했다.

한관 승부를 앞둔 두 감독은 용병투수를 1차전 선발로 내세웠다. KIA에서는 올 시즌 14승을 챙긴 로페즈가 1차전 선발로 나선다. 올 시즌 한국무대에 데뷔한 로페즈는 팀내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KIA 마운드를 지켰다. SK전에는 5번 출격했다. 4차례 선발로 등판한 로페즈는 2.27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을 거두며 호투했다.

카도쿠라는 시즌 5.00의 평균자책점을 기

록하며 8승4패를 기록했다. 두산과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선발로 나서 6과 3분의 1이닝동안 3피안타 7탈삼진 1실점(비자책)을 기록하는 등 안정된 투구로 한국시리즈 1차전 선발로 낙점됐다. KIA와의 경기에는 5번 등판해 3.2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지만 승리는 챙기지 못했다.

용병을 앞세워 1차전 승리를 노리는 스승과 제자. '정출어람'에 도전하는 조범현 감독의 움직임에 오랜 기다림을 해온 KIA 팬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로페즈

올 시즌 KIA-SK 상대 성적 비교

| KIA     | SK            |
|---------|---------------|
| 10승7패2무 | 상대 전적 7승10패2무 |
| 3.75    | 방어율 3.76      |
| 0.248   | 타율 0.254      |
| 25개     | 홀런 14개        |
| 164개    | 안타 171개       |
| 81      | 득점 85         |
| 16개     | 도루 29개        |
| 21개     | 병살 15개        |



SK 카도쿠라

|              |              |              |
|--------------|--------------|--------------|
| 14승5패(3.12)  | 정규리그 성적(자책점) | 8승4패(5.00)   |
| 5경기 2승(2.27) | 상대 전적        | 5경기 무패(3.25) |

## ■ KIA 필승 전략

'SK의 기동력을 막아라.'

KIA 타이거즈가 16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SK 와이번스와의 한국시리즈 1차전을 갖고 대망의 'V10'에 도전한다. KIA는 경기감각이라는 내부의 적은 물론 SK의 경험과 기동력이라는 적과도 싸움을 벌여야 한다.

KIA는 9월25일 최종전 이후 21일만에 그라운드에 오르며 체력은 충분히 비축해두

## 막강선발·'CK포'로 기선제압

<최희섭·김상현>

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경기감각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SK의 전력이다. 지난해 4승14패로 절대적 열세를 기록했던 KIA는 올 시즌 10승2무7패로 전세를 역전시켰지만 두 팀이 만나면 늘

만만치 않은 승부가 벌어졌다.

4차례나 12회 연장승부를 벌인 KIA는 SK전에 가장 많은 180이닝을 투사했다. 한 경기 평균 9.47이닝을 소화한 KIA는 아시아 최다연승인 19연승을 질주한 SK의 공세에 시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

하는 등 기가 질렸다. SK와의 경기에서 느끼는 KIA 선수단의 중앙감은 7개 구단 중 최고다. 무엇보다 SK는 2008년과 2009년 연속해서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경험에서 KIA에 한참 앞서 있다.

KIA에게는 두 장의 비장의 카드가 있다.

'막강 선발진'과 '극적인 한방'이다.

KIA가 윤석민의 부활로 탄력을 받은 데 반해 SK는 두산과의 혈투속에 마운드 전력의 많이 소모됐다. 또한 올 시즌 KIA는 김원섭의 끝내기 역전 만루 홈런, 나지완의 대타 만루홈런, 이재주의 대타 스리런 등 SK 마운드로부터 25개의 홈런을 뽑아내며 극적인 승부를 연출했다. 조범현 감독이 윤석민과 최희섭·김상현을 한국시리즈 키플레이어로 꼽은 것도 이런 이유다.

KIA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역시 기동력이다. 김성근 감독은 15일 미디어데이에 서 정근우를 키플레이어로 언급했다. 기동

력이 뛰어난 정근우가 움직여 SK의 공격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루 2위(53개)의 정근우를 앞세운 SK는 올 시즌 팀 도루 부문 1위(181개)에 올랐다. 경험이 부족한 KIA에게 SK의 기동력은 부담스럽다. 투수들은 주자와 타자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경기의 흐름을 짚기 어렵다. SK의 기동력은 상대의 수비와 마운드를 동시에 흔들 수 있는 무기다. '기동력'의 싸움이 한국시리즈에서 맞붙는 두팀의 표정을 바꿀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

## ■ 전문가들 KS전망

"1, 2차전 초반 결과에 따라 한국시리즈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야구 전문가들은 16일부터 시작하는 KIA-SK의 한국시리즈에 대해 "KIA 타자들이 오랜 휴식으로 떨어진 타격 감각을 얼마나 회복할지, 또 막강 KIA 선발 투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에 따라 한국시리즈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7전4선승제인 한국시리즈가 5차전을 넘기면 선발 투수력에서 앞서고 휴식으로 충분한 체력을 쌓은 KIA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허규연 MBC 해설위원 = KIA가 3주 가량 쉬었는데 긴 휴식 뒤 치르는 한국시리즈 1,2차전에서 공격력이 제대로 살아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KIA에게는 1,2차전 광주 홈 경기 가 가장 중요하다.

플레이오프에서 두산 김동주, 김현수를 묶은 SK의 분석야구에 KIA의 주포인 김상현, 최희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SK 타자들은 완전히 타격감각을 되찾았다. 시즌 막판 19연승을 거둘 때 분위기가 달랐다. KIA는 좌완 투수가 별로 없어 이런 SK 타자들을 막으려면 양현종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

강한 KIA 선발 투수들을 만나 SK 타자들이 얼마만큼 해낼지도 궁금하다.

변수가 많겠지만 7차전까지 가면 투수력과 체력에서 앞선 KIA가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SK는 우승하려면 5차전 안에 몰아쳐야 한다.

혹시라도 1,2차전에 비가 와 경기 가 연기 되면 SK 구원투수들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SK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병훈 KBS N 스포츠 해설위원 = SK 타자들이 두산과 플레이오프 5차전을 통해 타격 감각을 되찾았다. 또 SK 불펜도 5차전에서 컨디션이 좋을 정도만 던지고 내려가

SK 선수들은 지금 몸도 좋고 감각도 좋은 상태다.

또 2년 연속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자신감에도 가득 차 있다.

KIA는 충분히 쉬면서 완벽히 대비했겠지만 실전 감각이 떨어졌다는 것을 무시하기 어렵다. 자체 흥행전을 했지만 상대팀과 경기를 치르는 것과 다르고 큰 무대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있지만 한국시리즈와는 또 분위기가 다를 것이다.

KIA가 한국시리즈 정상을 차지하려면 기세가 오른 SK를 1차전에서 반드시 잡아야 한다.

1차전에서 꺾이면 KIA에게 부담이 아주 클 수 밖에 없다. KIA 중심타자인 김상현, 최희섭이 긴장을 떨치고 한국시리즈라는 큰 무대에서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하다.

◇김용희 SBS스포츠 해설위원 = SK가

플레이오프 초반 경기 감각 회복에 문제 있었듯이 KIA도 휴식이 길어 감각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시리즈 경기가 길어질 수 있다. 한국시리즈는 KIA의 선발 투수진과 SK의 계투진 싸움이 될 것이다.

1,2차전에서 KIA 타자들이 시즌 중과 같은 타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KIA 선발 투수들이 제대로 막아줘야 한다.

광주 두경기에서 KIA 선발이 무너지면 타자들의 경기감각이 떨어진 KIA로서는 힘든 시리즈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KIA 김상현이 가장 잘 해줘야 한다. 김상현은 올 시즌 팀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는 선수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효봉 Xports 해설위원 = KIA 선발 투수인 윤석민, 구본준, 로페즈 등이 정규시



<허규연> <이병훈> <김용희> <이효봉>

즌의 모습을 다시 보인다면 KIA는 쉽게 풀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투수가 초반 불 컨트론티에 허점을 보이면 큰 경기 경험이 많은 SK에 유리하다.

따라서 KIA 선발 투수진의 활약이 가장 중요하다. 선발만 제대로 되면 전체적으로 나온 경기를 할 수 있다.

두산이 준플레이오프에서 이긴 것은 김동주, 김현수가 잘 쳤기 때문이고 플레이오프에서 SK에 진 것은 이들 선수가 못 쳤기 때문이다.

SK는 박정권이라는 새로운 스타가 플레이오프에서 떠오르면서 중심 타선 싸움에서 두산에 이겼다.

한국시리즈가 처음인 KIA 중심타자 김상현과 최희섭이 살아줘야 KIA가 이길 수 있다. 한 두 점 차 승부에서는 경험에서 앞서고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SK가 한 수 위다. 불펜 싸움으로 가면 SK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KIA 선발투수 윤석민, 구본준, 로페즈 3명 중 2명이라도 제 기량을 보여 분위기를 이끌면 타자들도 빨리 제 페이스를 찾을 수 있다.

체력적으로는 KIA가 휴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SK보다 나올 수 있지만 SK는 2패 뒤 3연승하면서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피곤하지 않다.

/연합뉴스